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
----------	-----

발의연월일: 2023. 12. .

발의자: 신흥식, 정선희, 유승용,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예찬, 임현호, 전승관,
최인순 의원 (10인)

1. 제안이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아가 여의도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혀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며 이전계획 백지화를 요구함.
- 나.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거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함임.
- 다. 여의도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영등포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

3. 결의안: “별첨”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약속했고,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인력 100명만 남기고 산업은행의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채택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여의도는 금융산업 중심지로써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에 위기가 초래할까 염려된다.

금융산업은 시장경제체제의 자본순환을 담당하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가장 고도화된 산업이다. 최근에는 ICT 산업과 결합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부각되고 있고, 국가산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모두 관심을 가지고 금융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금융중심지 경쟁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2015년 세계 6위의 금융도시였으나, 부산, 전주로 금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 36위까지 순위가 추락했다. 그러나 여의도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기업들과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코로나19 위기도 돌파하고 2023년 11위까지 그 순위를 끌어올렸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업 수는 2016년부터 연평균 10%씩 증가했고, 이 중 899개의 기업이 서울에 위치하며 그중 40%가 여의도에 위치한다. 또한 금융기업 창업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 창업기업의 50% 이상이 여의도에 소재한다.

이런 통계수치들은 금융산업의 집적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산업은 연관 기업 간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며 연관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되었을 때 그 시너지를 발휘한다. 즉, 금융산업만큼은 균형과 분산의 관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적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적인 금융도시들도 연관 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융성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21년 전 세계 TOP 5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여의도에 핀테크 중심의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국제디지털금융지구,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선언한 바 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을 세계 금융도시로 발돋움시키려는 분위기 속에서,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금융산업을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

은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필연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등포구의회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이 국가 금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논의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며 이전계획 백지화를 요구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반하거나 지역이기주의적 접근이 아니며,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함임을 명백히 밝힌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여의도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청, 영등포구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